주요 노동동향

경제 및 고용 동향

◈ 2009년 12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09년 12월 광공업 생산은 석유정제, 음료 등에서는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33.9%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 보건·사회복지, 도·소매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109.2%), 자동차(59.0%), 1차 금속(36.5%)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석유정제(-7.0%), 음료(-12.4%), 기타운송장비(-4.1%) 등을 중심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서비스업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2.1%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부동산·임대(12.2%), 보건·사회복지(11.6%), 도·소매(8.1%), 금융·보험(5.9%), 전문·과학·기술(5.8%)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2009년 12월 소비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하였고, 설비투자는 21.1% 증가함.

- 소비재 판매액지수는 승용차,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에서 전년동월대비 44.4%,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에서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설비투자는 반도체장비, 승용차 등에서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21.0% 증가하였으며, 건설기성은 공공·민간 부문 모두 공사실적 호조

로 13.1% 증가한 반면, 건설수주는 공공 부문의 주택건축, 토목(도로・교량)과 민간 부문의 사무실・점포 건축 등에서의 발주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9.5% 감소함.

○ 현재의 경기 사정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하였으며,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 0.2%p 상승하여 2009년 1월부터 12개월 연속 상승함.

○ 현 2009년 광공업 생산은 전년대비 -0.7%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1.7% 증가함. 소비는 2.7% 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는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건설기성 및 건설수주는 각각 3.7%, 1.8% 증가함.

◈ 2010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3.1% 상승(생활물가지수 3.8% 상승)

○ 2010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2(2005=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함으로써 2009년 4월 3.6% 상승 이후 9개월만에 다시 3%대 상승을 보임.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7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2월	1/4	2/4	3/4	4/4p	연간	12월p
생산	광공업 생산	4.0	7.0	5.9	11.0	6.8	10.6	8.9	5.6	11.3	3.0	-18.7	-15.5	-6.2	4.2	16.1	-0.7	33.9(3.5)
	제조업 생산	4.1	7.1	6.2	11.2	7.0	10.7	9.3	5.5	-12.1	3.0	-20.0	-16.4	-6.7	4.4	16.8	-0.9	35.9(3.5)
	출 하	5.1	7.2	5.4	10.6	7.1	8.9	6.6	5.3	-10.1	2.4	-15.5	-14.7	-5.9	2.1	12.8	-1.7	26.2(2.8)
	내 수	4.1	4.9	3.0	6.8	4.9	5.3	1.7	1.7	-11.0	-0.7	-14.9	-16.3	-6.6	3.1	12.2	-2.3	25.8(6.0)
	수 출	6.7	9.9	9.1	16.2	10.2	14.3	14.3	10.3	-8.8	7.1	-16.3	-12.4	-4.7	0.8	13.7	-0.8	26.7(-2.2)
	서비스업 생산	5.4	6.4	7.2	6.8	6.4	6.4	4.8	3.2	-0.4	3.4	-1.2	-0.4	1.6	2.2	3.3	1.7	5.3(1.8)
소비	소비재 판매	5.7	5.2	7.1	4.5	5.3	3.9	2.9	1.4	-4.2	1.0	-4.5	-4.9	1.6	3.4	10.6	2.7	12.1(1.7)
투자	설비투자	12.8	12.1	0.7	9.2	8.6	-0.9	-2.7	5.3	-13.4	-4.3	-18.4	-17.7	-13.4	-10.1	10.7	-8.1	21.0(4.0)
물가		2.1	2.4	2.3	3.3	2.5	3.8	4.8	5.5	4.5	4.7	4.1	3.9	2.8	2.0	2.4	2.8	3.1(0.4)

주 : p는 잠정치임. ( )안은 전기(월)비를 나타냄.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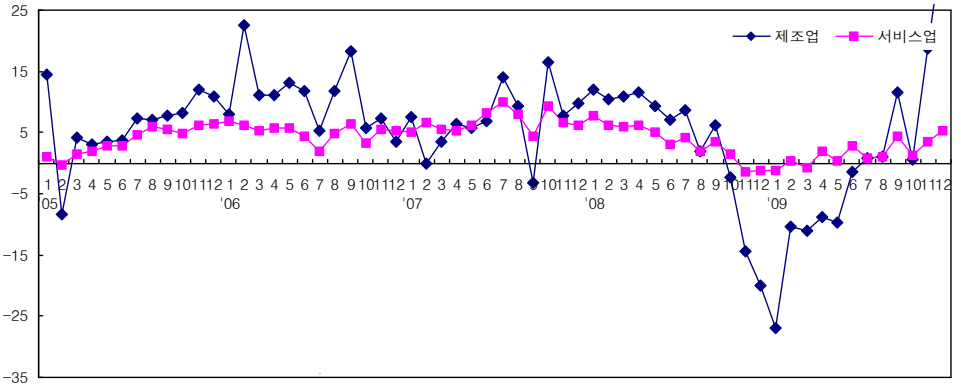
3) 물가는 8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1.6%), 보건의료(1.4%), 교통(0.7%), 주거 및 수도·광열(0.3%), 교양·오락·교육(0.2%) 등을 중심으로 상승한 반면, 의복·신발(-0.1%), 기타잡비(-0.8%), 가구집기·가사용품(-0.3%) 부문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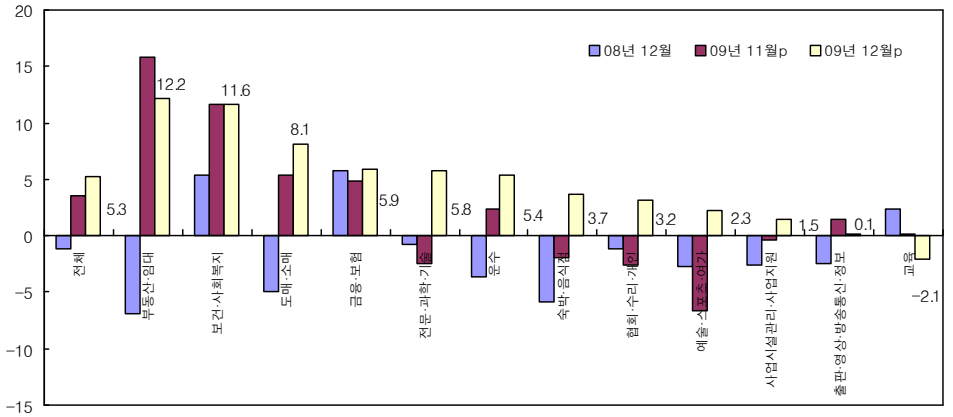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 통계청, 『2009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09. 8.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고용률 감소

○ 2009년 경제활동인구는 24,394천 명으로 전년대비 48천 명(0.2%)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319천 명으로 111천 명(0.8%)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076천 명으로 63천 명(-0.6%) 감소함.

○ 2009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0.8%로 전년대비 0.7%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73.1%)이 전년대비 0.4%p, 여성(49.2%)이 전년대비 0.8%p 하락함(그림 3 참조).

○ 2009년 고용률은 58.6%로 전년대비 0.9%p 하락
  – 남성의 고용률은 70.1%로 전년대비 0.8%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7.7%로 전년대비 1.0%p 하락하였음.

○ 2009년 취업자는 23,506천 명으로 전년대비 72천 명(-0.3%)이 감소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734천 명으로 전년대비 31천 명(0.2%)이 증가한 반면, 여성 취업자는 9,772천 명으로 전년대비 103천 명(-1.0%)이 감소함(그림 4 참조).

○ 2009년 실업자는 889천 명으로 전년대비 119천 명(15.57%)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6%로 전년대비 0.4%p 증가함.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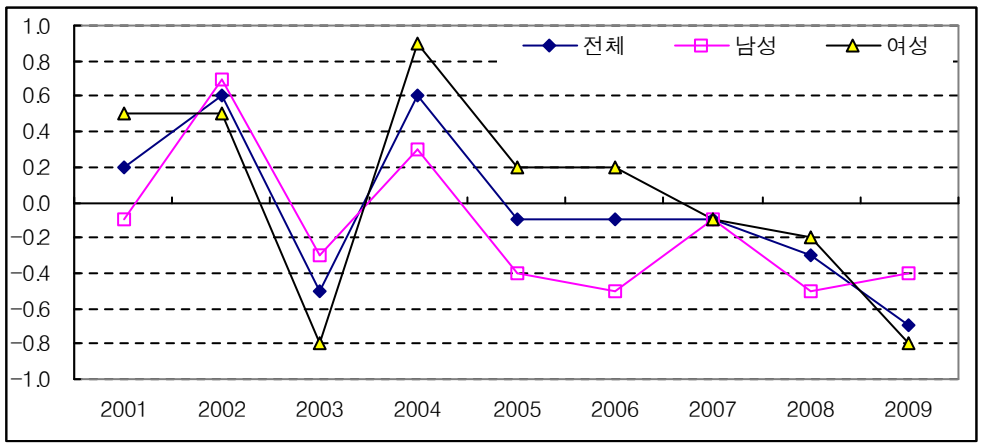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05	2006	2007	2008	2009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경제활동인구	23,743 (1.4)	23,978 (1.0)	24,216 (1.0)	24,347 (0.5)	24,394 (0.3)	24,032 (0.2)	24,394 (0.2)	24,448 (0.2)	24,063 (0.1)
참 가 율	62.0	61.9	61.8	61.5	61.3	60.4	60.8	60.7	59.7
취 업 자	22,856 (1.3)	23,151 (1.3)	23,433 (1.2)	23,577 (0.6)	23,636 (0.3)	23,245 (-0.1)	23,506 (-0.3)	23,631 (0.0)	23,229 (-0.1)
고 용 률	59.7	59.7	59.8	59.5	59.4	58.4	58.6	58.7	57.6
실 업 자	887	827	783	769	757	787	889	817	834
실 업 률	3.7	3.5	3.2	3.2	3.1	3.3	3.6	3.3	3.5
비경제활동인구	14,557 (1.8)	14,784 (1.6)	14,954 (1.2)	15,251 (2.0)	15,373 (2.5)	15,772 (2.8)	15,698 (2.9)	15,829 (3.0)	16,253 (3.0)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 『200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10. 1.

〔그림 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단위 : %p, 전년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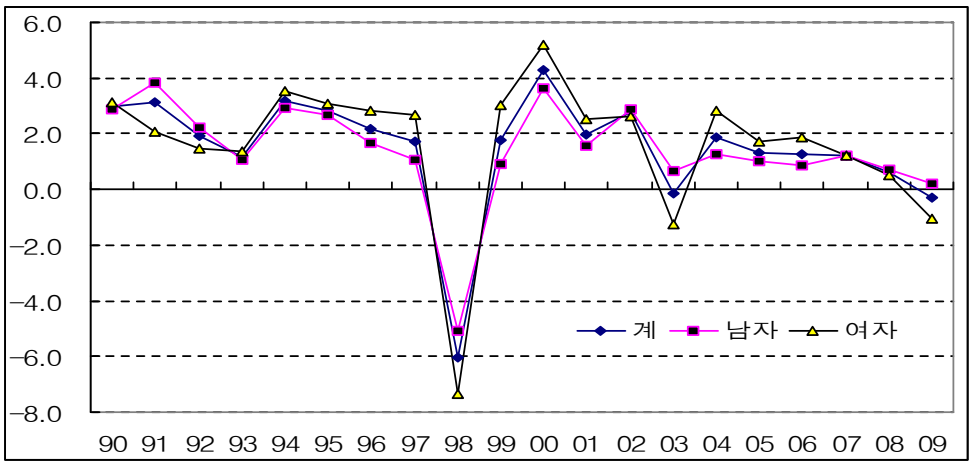
- 남성 실업자는 584천 명으로 전년대비 80천 명(15.8%)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04천 명으로 전년대비 40천 명(15.0%)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4.1%로 전년대비 0.5%p, 여성은 3.0%로 전년대비 0.4%p 증가함.

○ 2009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5,698천 명으로 전년대비 447천 명(2.9%)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278천 명으로 전년대비 161천 명(3.2%)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420천 명으로 전년대비 268천 명(2.8%)이 증가함.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포함하는 '통학'은 4,292천 명으로 31천 명(0.7%), 구직단념자는 162천 명으로 전년대비 43천 명(36.6%),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475천 명으로 전년대비 123천 명(9.1%) 증가함.

◈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감소세 지속

○ 2009년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48천 명, 4.6%)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39천 명, -2.4%), 제조업(-126천 명, -3.2%), 건설업(-91천 명, -5.0%), 농림어업(-38천 명, -2.2%), 전기·운수·통신·금융업(-25천 명, -0.9%)에서는 감소함.

– 2005년 이후 제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감소세 지속(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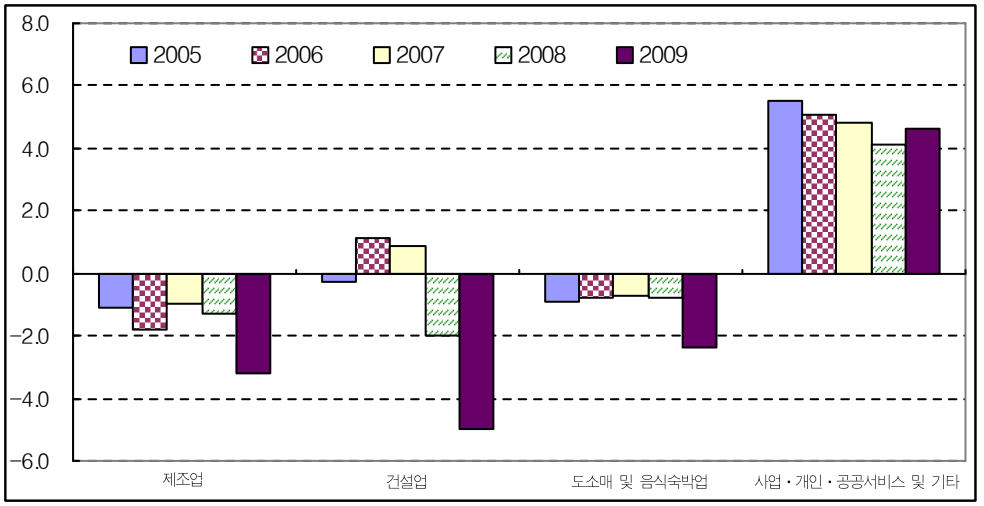
	2005	2006	2007	2008	2008 4/4분기	2008 12월	2009	2009 4/4분기	2009 12월
전 산 업	22,856 (1.3)	23,151 (1.3)	23,433 (1.2)	23,577 (0.6)	23,636 (0.3)	23,245 (-0.1)	23,506 (-0.3)	23,631 (0.0)	23,229 (-0.1)
농림어업	1,815 (-0.5)	1,785 (-1.7)	1,726 (-3.3)	1,693 (-2.0)	1,703 (0.8)	1,408 (0.6)	1,648 (-2.2)	1,579 (-6.9)	1,231 (-12.1)
제조업	4,234 (-1.3)	4,167 (-1.6)	4,119 (-1.1)	4,079 (-1.0)	4,048 (-1.8)	4,028 (-2.4)	3,836 (-3.2)	3,862 (-1.2)	3,872 (-0.4)
건설업	1,814 (-0.3)	1,835 (1.1)	1,850 (0.8)	1,819 (-1.7)	1,815 (-2.0)	1,763 (-2.5)	1,720 (-5.0)	1,704 (-5.9)	1,701 (-3.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806 (-1.0)	5,762 (-0.8)	5,726 (-0.6)	5,677 (-0.8)	5,657 (-1.1)	5,699 (-1.1)	5,536 (-2.4)	5,511 (-2.6)	5,567 (-2.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6,923 (5.6)	7,251 (4.7)	7,600 (4.8)	7,900 (4.0)	8,017 (3.3)	7,956 (2.9)	7,981 (4.6)	8,149 (4.6)	7,994 (3.4)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246 (2.7)	2,333 (3.9)	2,393 (2.6)	2,389 (-0.2)	2,373 (-1.7)	2,369 (-1.5)	2,761 (-0.9)	2,802 (1.8)	2,842 (3.4)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 『200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10. 1.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비임금근로자 감소세 증가

○ 2009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052천 명으로 전년대비 319천 명(-4.3%)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454천 명으로 전년대비 247천 명(1.5%)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390천 명으로 383천 명(4.3%), 임시근로자는 5,101천 명으로 22천 명(0.4%)이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1,963천 명으로 158천 명(-7.4%) 감소함.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용근로자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반면, 일용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6 참조).

○ 2009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110천 명으로 전년대비 337천 명(-9.8%)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032천 명으로 251천 명(1.3%) 증가함.

◈ 실업자 및 실업률은 모든 계층에서 증가

○ 2009년 연령계층별 실업자는 15~29세(33천 명), 30대(26천 명), 40대(21천 명), 50대(27천 명), 60세 이상(13천 명)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함.

- 2009년 연령계층별 실업률 역시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였으며, 특히 20~29세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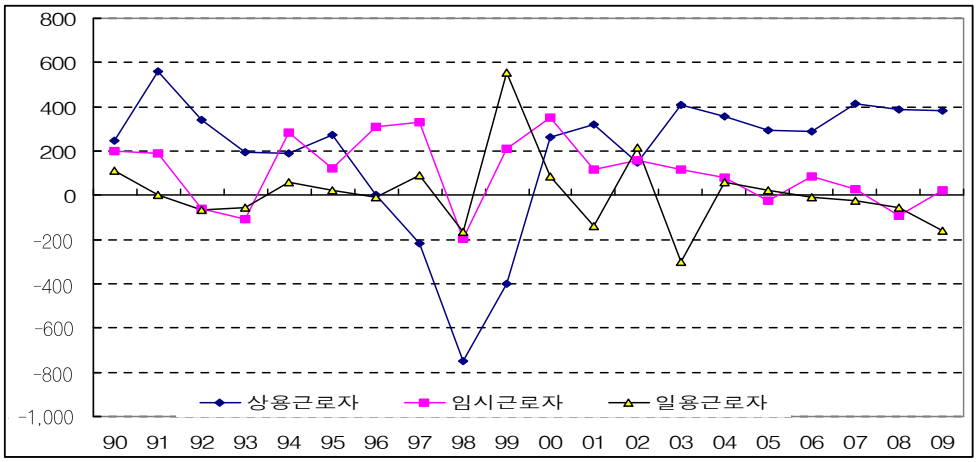
	2005	2006	2007	2008	4/4분기	12월	2009	4/4분기	12월
전 체	22,856 (1.3)	23,151 (1.3)	23,433 (1.2)	23,577 (0.6)	23,636 (0.3)	23,245 (-0.1)	23,506 (-0.3)	23,631 (0.0)	23,229 (-0.1)
비임금근로자	7,671 (0.1)	7,600 (-0.9)	7,463 (-1.8)	7,371 (-1.2)	7,343 (-1.1)	7,056 (-1.4)	7,052 (-4.3)	6,952 (-5.3)	6,674 (-5.4)
자영업주	6,172 (1.0)	6,135 (-0.6)	6,049 (-1.4)	5,970 (-1.3)	5,939 (-1.6)	5,779 (-1.6)	5,711 (-4.3)	5,600 (-4.7)	5,514 (-4.6)
무급가족종사자	1,499 (-3.5)	1,466 (-2.2)	1,413 (-3.6)	1,401 (-0.9)	1,404 (0.9)	1,277 (-0.4)	1,341 (-4.2)	1,292 (-7.9)	1,161 (-9.1)
임금근로자	15,185 (2.0)	15,551 (2.4)	15,970 (2.7)	16,206 (1.5)	16,294 (0.9)	16,189 (0.5)	16,454 (1.5)	16,678 (2.4)	16,555 (2.3)
상용근로자	7,917 (3.8)	8,204 (3.6)	8,620 (5.1)	9,007 (4.5)	9,106 (3.6)	9,068 (3.6)	9,390 (4.3)	9,621 (5.7)	9,632 (6.2)
임시근로자	5,056 (-0.5)	5,143 (1.7)	5,172 (0.6)	5,079 (-1.8)	5,062 (-1.8)	5,082 (-1.8)	5,101 (0.4)	5,167 (2.1)	5,074 (-0.2)
일용근로자	2,212 (1.1)	2,204 (-0.4)	2,178 (-1.2)	2,121 (-2.6)	2,126 (-3.8)	2,040 (-6.3)	1,963 (-7.4)	1,891 (-11.1)	1,849 (-9.3)
36시간 미만	2,794 (8.6)	2,810 (0.6)	3,022 (7.5)	3,447 (14.1)	2,833 (11.1)	3,170 (20.0)	3,110 (-9.8)	2,961 (4.5)	3,126 (-1.4)
36시간 이상	19,730 (0.3)	20,020 (1.5)	20,081 (0.3)	19,781 (-1.5)	20,552 (-1.2)	19,772 (-3.1)	20,032 (1.3)	20,404 (-0.7)	19,826 (0.3)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200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10. 1.

〔그림 6〕 임금근로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7.9%, 0.9%p), 30대(3.6%, 0.5%p)의 증가가 두드러짐.

- 교육정도별 실업률도 모든 계층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졸(4.4%, 0.6%p), 대졸 이상(3.3%, 0.5%p)에서 크게 증가함.

○ 2009년 전체 실업자 889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39천 명으로 전년대비 3천 명 감소한 반면,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849천 명으로 122천 명 증가함.

〈표 5〉 연령별 · 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

	2005	2006	2007	2087	4/4분기	12월	2009	4/4분기	12월
전 체	887(3.7)	827(3.5)	783(3.2)	769(3.2)	757(3.1)	787(3.3)	889(3.6)	817(3.3)	834(3.5)
15~29세	387(8.0)	364(7.9)	328(7.2)	315(7.2)	300(7.0)	324(7.6)	347(8.1)	320(7.6)	324(7.6)
30~39세	210(3.3)	191(3.0)	198(3.2)	194(3.1)	202(3.3)	189(3.1)	220(3.6)	202(3.3)	203(3.4)
40~49세	165(2.5)	152(2.3)	135(2.0)	142(2.1)	134(2.0)	140(2.1)	163(2.4)	151(2.3)	152(2.3)
50~59세	93(2.5)	85(2.2)	87(2.1)	87(2.0)	93(2.1)	102(2.3)	114(2.5)	104(2.2)	110(2.4)
60세 이상	32(1.3)	36(1.4)	36(1.4)	32(1.2)	29(1.1)	32(1.3)	45(1.6)	41(1.5)	46(1.9)
중졸 이하	154(2.6)	136(2.4)	119(2.1)	118(2.2)	111(2.1)	125(2.5)	130(2.5)	119(2.3)	137(2.9)
고 졸	472(4.6)	420(4.1)	389(3.8)	384(3.8)	383(3.8)	417(4.2)	437(4.4)	393(4.0)	403(4.1)
대졸 이상	261(3.4)	272(3.4)	275(3.2)	268(3.0)	263(2.9)	245(2.7)	321(3.5)	306(3.2)	295(3.1)
취업무경험 실업자	42	44	41	42	37	44	39	36	44
취업유경험 실업자	845	784	742	727	721	743	849	781	791

주 :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 『200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10. 1.

(정성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가계수지 동향

◈ 2009년 3/4분기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비는 증가한 반면, 소득은 감소

○ 2009년 3/4분기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로는 1.4% 감소하였음(실질로는 3.3% 감소).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0.3%)과 재산소득(-28.7%)은 감소하였으나, 사업소득(3.6%), 이전소득(5.0%)은 증가하였음.
- 소비지출의 경우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등은 감소하였으나 보건의료, 교통, 오락·문화 등에서는 증가해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였음(실질로는 1.5% 증가).

〈표 6〉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 천 원, %)

	금 액			증 감 률		
	2008. 3/4	2009. 2/4	2009. 3/4	2008. 3/4	2009. 2/4	2009. 3/4
소 득	3,506.4	3,298.9	3,456.3	7.1	-0.1	-1.4
실 질	3,156.0	2,928.0	3,050.6	1.5	-2.8	-3.3
경상소득	3,324.8	3,182.6	3,351.4	6.9	1.1	0.8
근로소득	2,284.2	2,157.5	2,276.4	7.8	1.4	-0.3
사업소득	737.5	731.2	763.7	3.2	-1.1	3.6
재산소득	20.9	15.4	14.9	9.6	-23.1	-28.7
이전소득	282.2	278.5	296.4	9.5	6.8	5.0
비경상소득	181.6	116.3	104.9	11.7	-24.0	-42.2
소비지출	2,133.9	2,070.7	2,197.2	4.8	1.4	3.0
실 질	1,925.3	1,852.0	1,953.7	-0.5	-1.1	1.5
비소비지출	644.6	592.7	621.1	7.2	2.9	-3.6
실 질	580.2	526.0	548.2	1.7	0.1	-5.5
처분가능소득	2,861.8	2,706.2	2,835.2	7.1	-0.7	-0.9
흑자액	727.9	635.5	638.0	14.6	-6.9	-12.4
흑자율	25.4	23.5	22.5	1.7p	-1.6p	-2.9p
평균 소비성향	74.6	76.5	77.5	-1.7p	1.6p	2.9p

주 : 1) 실질소득(소비)=(소득/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100
2)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3)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4) 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자료 : 통계청, 『2009년 3/4분기 가계동향』, 2009. 11.

〈표 7〉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 천원, %)

	금 액			증 감 률		
	2008. 3/4	2009. 2/4	2009. 3/4	2008. 3/4	2009. 2/4	2009. 3/4
소 득	4,017.3	3,711.5	3,902.7	7.8	-2.1	-2.9
실 질	3,615.9	3,294.2	3,444.6	2.1	-4.8	-4.7
경상소득	3,864.5	3,589.5	3,790.1	7.8	-1.1	-1.9
근로소득	3,536.0	3,262.9	3,439.5	8.3	-1.2	-2.7
사업소득	143.5	140.9	154.3	-6.8	-3.6	7.6
재산소득	14.6	12.9	14.5	2.5	-11.4	-0.9
이전소득	170.4	172.8	181.7	13.5	3.7	6.6
비경상소득	152.8	122.0	112.6	5.6	-25.3	-26.3
소비지출	2,303.3	2,226.5	2,358.4	5.7	-0.4	2.4
실 질	2,076.1	1,990.5	2,095.3	0.3	-2.9	0.9
비소비지출	752.3	690.7	718.6	10.6	1.4	-4.5
실 질	677.1	613.1	634.3	4.9	-1.3	-6.3
처분가능소득	3,265.0	3,020.8	3,184.1	7.1	-2.9	-2.5
흑자액	961.7	794.3	825.6	10.7	-9.2	-14.1
흑자율	29.5	26.3	25.9	1.0p	-1.8p	-3.5p
평균 소비성향	70.5	73.7	74.1	-1.0p	1.8p	3.5p

주 : <표 6>과 동일.

- 비소비지출의 경우는 사회보장(건강보험료 등)은 7.4% 증가하였으나 경상조세(소득세, 재산세 등) 및 가구간 이전지출(교육비 및 생활비 송금)은 각각 9.7%, 20.1% 감소

○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은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했으며 실질로는 4.7% 감소하여 감소세 지속

- 2009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상소득은 이전소득(6.6%)과 사업소득(7.6%)은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2.7%)과 재산소득(-0.9%)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비경상소득은 26.3% 감소하였음.
-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실질로도 0.9% 증가하였음.

○ 가처분소득(가구균등화 적용) 5분위 배율은 전년 동분기 5.51배에서 5.47배로 다소 낮아짐.

〈표 8〉 균등화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

(단위 : 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 간
2003	5.52	5.08	5.43	5.09	4.80
2004	5.46	5.02	5.39	5.46	4.86
2005	5.86	5.28	5.62	5.28	4.97
2006	5.73	5.18	5.74	5.40	5.05
2007	5.86	5.23	5.55	5.42	5.18
2008	5.83	5.25	5.51	5.21	5.15
2009	5.92	5.11	5.47	-	-

주 : 균등화(가처분)소득은 가구가처분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주는 OECD작성 방식에 따름.
소득 5분위배율=상위 20%의 소득(5분위)/하위 20%의 소득(1분위)

(반정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추이

○ 2010년 1월 1일부터 1월 28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발생건수는 2건, 근로손실일수(2010년 1월 20일 기준)는 31,900일로 집계됨.

〈표 9〉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 개소, %)

	2010. 1. 1~2010. 1. 28	전년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2	0	
종 결	1	0	
진 행	1(4)	0(3)	(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31,900	3,730	755.2

주 :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1월 20일 기준임.
자료 : 노동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시행)

○ 주요 내용

- 조합원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대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법 제24조 제3항·제4항·제5항, 제24조의 2 신설, 법 제81조 제4호, 제92조).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법 제29조의 2 제1항 신설)
-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고, 안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도록 하며,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함(법 제29조의 2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의 5, 제41조 후단, 제42조의 6 제1항 신설).
-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의 3 신설)
-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의 4 신설, 법 제89조 제2호).

○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쟁점

- 노동부가 지난 1월 11일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월 21일까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 연합 등이 의견서 제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노사정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표 10〉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쟁점과 노사정의 입장

	정부안	노동계	경영계
타임오프 총량 및 활용인원	시간단위로 정하되, 인원제한 가능	- 인원제한 삭제 - 상급단체 파견 한도는 별도 설정 - 상급단체, 산별노조 파견은 노사단협으로 설정(민주노총)	- 인원제한 의무화 - 상급단체 파견, 타임오프에서 제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 근로자위원 추천권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전국규모 총연합단체	
복수노조 공동교섭단	인원제한 없음(조합원 10% 이하 노조는 자격없음)		3명 이상으로 명문화
과반수 노조 이의제기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		사용자도 신청가능
복수노조 교섭분리신청	교섭요구 사실 공고시점부터 교섭대표 노조 결정전까지는 신청불가	교섭참여노조 확정 전까지는 신청가능	교섭분리신청 기간 7일로 제한(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동안)

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참조.
자료 : 매일노동뉴스 2010년 1월 26일 자.

〈표 11〉 2009년도 임금교섭 타결 현황

(단위 : 개소, %)

	사업장수(A)	타결사업장수(B)	타결률(B/A×100)	임금인상률
전 체	6,781 (6,745)	5,168 (5,667)	76.2 (84.0)	1.7 (4.9)
민간부문	6,506 (6,494)	5,035 (5,483)	77.4 (84.4)	1.8 (5.0)
공공부문	275 (251)	133 (184)	48.4 (73.3)	0.0 (3.0)
300인 미만	4,888 (4,910)	3,770 (4,027)	77.1 (82.0)	3.2 (4.9)
300~500인 미만	846 (818)	627 (723)	74.1 (88.4)	2.1 (5.2)
500~1,000인 미만	585 (574)	442 (523)	75.6 (91.1)	1.5 (4.7)
1,000~5,000인 미만	412 (398)	297 (355)	72.1 (89.2)	1.2 (4.5)
5,000인 이상	50 (45)	32 (39)	64.0 (86.7)	0.2 (5.2)

주 : ( )안은 전년동기 통계임.
자료 : 노동부.

◈ 2009년 임금교섭 타결 현황 분석

○ 2009년 임금교섭 타결사업장의 협약임금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1.7%로 2008년 4.9%에 비해 3.2%p 하락

-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모두 전년에 비해 임금인상률이 대폭 하락하였으며, 특히 공공부문은 평균인상률 0.0%를 기록

○ 임금교섭 진행이 완료된 사업장 비율(타결률)은 76.2%로 2008년 84.0%에 비해 느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으며, 연도별로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다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1.7%를 나타냄.

○ 사업장규모별 임금인상률은 규모가 클수록 낮은 인상률을 보여, 5,000인 이상 기업의 인상률이 가장 낮은(0.2%) 반면에, 300인 미만 기업의 인상률이 가장 높은(3.2%)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운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전년대비 임금인상률이 하락

○ 임금교섭 타결사업장 중 임금 동결·감소사업장의 비율은 45.1%(2,329개소/5,168개소)로 나타남.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노사의 양보교섭 확산에 따라 임금동결·감소사업장수가 대폭 증가하여 외환위기(1999년 기준 4,350개소) 이후 가장 많은 사업장이 임금을 동결·감소

◈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2010년 1월 27일 금속노조는 서울 강서구 KBS88체육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재적 대의원 640명 중 507명 참석), 금년도 사업계획 확정

- 전임자수와 조합활동, 기존의 교섭권 보장 등을 위해 모든 교섭단위(지부, 사업장)는 2월중 특별단체교섭 또는 보충교섭을 요구
  - ※ 특별교섭 및 보충교섭이 진전없을 시, 임단협 교섭을 앞당겨 진행할 계획(지난해 노조 산하 101개 사업장은 전임자 조항 등의 노조법이 개정될 경우 특별단체교섭을 열기로 합의했으며, 54개 사업장은 단협상 보충교섭 조항이 존재한다고 주장)
- 통상적인 임단협 교섭과 관련 3월초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 요구안을 확정하고, 3월 20일경 요구안 발송 및 4월 초 교섭 돌입, 5월 하순 임단협 파업 찬반투표, 6월중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 장기투쟁사업장 조합원 생계지원방안 관련, 15만 전조합원이 9월 말까지 1만원의 특별결의금 결의

◈ 한진중공업, 감원 등을 둘러싼 쟁의 진행

○ 2009년 12월 31일 사측은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희망퇴직 349명 등 400여명을 감원한데 이어 설계부문 분사 등의 방법을 통해 추가적으로 600여명에 대한 감원을 계획하자 노조는 이에 쟁의돌입

- 노조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부분 또는 전면파업(노조는 3월 25일~5월 18일까지 8차례 임단협 교섭이 진전이 없자 5월 20일 조정신청(6월 1일 조정중지), 5월 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 2009년 12월 18일 사측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영위기로 인해 전체 직원(2,892명)의 30% 이상 감축내용의 구조조정 계획을 노조에 통보
- 2009년 12월 30일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발, 서울 본사 상경투쟁(60여명), 12월 31일 사내 결의대회(700여명), 2010년 1월 5일부터 4시간 부분파업
- 2010년 1월 28일 노조는 집중노사협의(1.25~1.27)가 별다른 진전이 없자 13:00부터 4시간 부분파업(800여명 참가) 재돌입(1월 5일부터 노조 상집간부 20여명이 노조사무실 등에서 철야농성 계속)

  ※ 노·사 주요 쟁점 : 구조조정 계획 철회(수용불가), 기본급 87,709원 인상 및 상여금 100%p(600%→700%) 인상(동결), 성과금 100%p(300%→400%) 인상(성과금 및 경영위기동참격려금 2008년 지급기준의 각 30%씩 지급), 고정연장근로 20시간 추가(실연장근로시간만 인정)

◈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및 위원장 등 임원 선출

○ 2010년 1월 28일 민주노총은 서울 KBS 88체육관에서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위원장 등 임원(제6기, '10. 2. 1~'13. 1. 31) 선출

- 위원장·사무총장에 김영훈(전 철도노조 위원장)·강승철(현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후보가 52.0% 득표로 당선 (대의원 951명 중 723명 투표, 376표 득표)
- 부위원장에는 일반명부 후보 6명 중 2명만이 50% 이상 득표로 당선, 여성명부 후보 2명은 모두 50% 이상 득표로 당선

  ※ 당초 일반 4명, 여성 3명 선출 예정에 일반 8명, 여성 5명이 후보로 등록하였으나 1월 11일 임성규 전 위원장이 통합후보 구성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 후보 사퇴하며 일반 2명, 여성 3명도 후보 사퇴 KLI

(반정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